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주카페 10곳 '관광안내소'로 변신

전주매일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음 10월 14일) 제29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챌린지 테마파크' 부안 변산에 온다

새만금 관광명소화 본격화

전북도, 개발청·농식품부 계성건설·에스엠지텍 등 관광개발사업 투자 협약 리조트호텔·대관람차 등 2025년까지 890억원 투자 8만1322㎡ 규모로 조성

전북도는 17일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업체인 계성건설, 에스엠지텍과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관문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호텔과 애견호텔, 글램핑장, 대관람차 등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전북도는 17일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업체인 계성건설, 에스엠지텍과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에 민간기업이 새만금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제3자 제안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인 ㈜챌린지테마파크컨소시움과 성사된 이번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새만금 명소화 용지인 방조제 부속 부지에 8만1,322㎡(2만5,000평) 규모의 각종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890억원이 투입돼 고급 리조트호텔(30실), 글램핑장(25실), 캠핑장(80실),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대관람차, 쇼핑상가, 산책로, 전망레스토랑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번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42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내외에 1,190명의 고용이 유발되며, 향후 테마파크가 운영되면 140여 명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감도

이번에 조성되는 새만금 명소화 용지는 방조제 부속 부지로,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광과 휴양시설로 조성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1호 방조제 시점부에는 현재 새만금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간척박물관이 2022년 5월까지 건립공사를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같이 새만금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VR·AR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통합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어, 1호 방조제 시점부가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문화·관광시설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텔 및 문화공연장이 조성되면, 새만금은 편하게 쉬면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단지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 및 휴양도시로 만들어 세계인들이 전북의 맛과 멋을 맘껏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후 운영을 맡게 될 ㈜에스엠지텍 유청기 대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컨소시엄에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투자협약은 계성건설(전주)과 에스엠지텍(부안)이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자가 돼 도내 사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새만금 관광사업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법인을 설립(SPC)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지정받은 후,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수험표를 전달하는 선생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7일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전달하고 있다.

'요소수 수급문제, 민간과 손잡고 해결'

전북도, 긴급 간담회 열고 확보·공급 방안 등 논의

전북도가 중국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른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수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도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가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및 동향을 공유하고, 요소수 확보방안 및 안정적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와 요소수 매점매석 등 지역경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분야별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차량용 요소수 생산 및 공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을 협조해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과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는 운수업계 및 농업분야에서 요소수 부족에 따른 업계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정부의 요소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점검체계를 운영해 도내 전반에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도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에도 여러 부서들이 협업해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듯이, 이번 요소수 사태도 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사태로 물류, 농업, 교통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독립 위해 공헌하신 숭고한 정신 기리며

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건국포장 1명·대통령 표창 전수 2명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는 17일 전주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석규 애국지사,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와 약사보고와 기념사, '전북의 얼' 창작 노래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도민통합과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1927년 전남 무안에서 농민항쟁으로 일제에 저항하여 옥고를 치르신 건국포장 수훈자 고 서병은 님, 1905년 정읍에서 최익현 의병진에 참여했던 대통령 표창 수훈자 고 장진욱 님, 1919년 전주에서 3.1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던 대통령 표창 수훈자 고 김진옥 님의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통령 표창의 수훈자이신 고 장진욱님과 고 김진옥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전북도의 지원으로 광복회 전북지부에서 '한말전북 의병사'와 '전북 3.1운동사' 발간 시 공적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해 포상이 이뤄진 점이다.

올해 국가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 행사 주제는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던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광복에 이르렀음을 잊지않고,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순국선열의 유업을 본받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유호상 기자